

순천 봉화산 등산로 폐쇄되나

하루 1만여명 찾아... 땅주인 "보상 안하면 봉쇄"

市 "도시공원구역 확정 2010년께나 가능"

순천 봉화산 등산로 가운데 사유지 일부가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이 길을 이용해 온 시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J모(63)씨는 봉화산 산 8-1번지 일대 15만여㎡를 상속받았으나 이 지역이 공원지구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J씨의 사유지는 지난 수십년간 봉화산 등산로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순천시가 임의로 운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다.

J씨는 이와 관련 "순천시가 토지 사용료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당국이 토지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J씨는 순천시가 보상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조만간 사유지를 철조망으로 둘러싸는 등 사실상 폐쇄하겠다고 밝혀 등산객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옛 도심과 신도심 공간에 위치해

있는 봉화산은 연자부와 팔각정, 우석 김종의 선생 동상 등 각종 유적과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어 평일과 휴일에 5천~1만여 명의 시민들이 산책이나 등산 코스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시민공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 관계자는 "봉화산 공원지구 내 개인 사유지가 50만㎡가 넘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09년까지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돼 2010년께 이곳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인기 국회의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사진)

이예앞서 여수시는 지난 9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명예 유치 위원장'인 현대·기아차 정몽구



한덕수 총리 등 박람회 유치 주역 3인에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의 주역 3인방이 명예 여수시민이 됐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달 30일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유치성공 범국민 보고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인기 국회의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사진)

이예앞서 여수시는 지난 9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명예 유치 위원장'인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에게 명예 여수 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명예 여수시민 1호는 재일(在日) 여수회 부회장으로 여수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일본인 가와이 이사부씨이며 한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로버트 김(김재관)씨도 지난 1999년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한전 광양지점 2년 연속

국가품질경영 대령상

한전 광양지점이 산업자원부 주최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령상을 수상했다.

한전 광양지점은 한전이 시행하는 내부경영평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전반기 최초로 '무정전 500일'을 달성했다.

또 대책사업으로 시행중인 글로벌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원활한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인선 지점장은 "국가품질경영대회 2년 연속 수상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50명 선발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노관규)가 21세기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 50명(대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을 2007년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각 50만원~100만원씩 3천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학업성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인재육성 장학생들을 선정

했으며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초·중학생과 예·체능 특기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범시민 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농업중앙회 순천시지부는 인재육성장학회에 1억7천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안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시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21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영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독립운동가 조경한 선생 재조명 활발

순천대서 학술 심포지엄

순천시 주암면 출신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1900~1993)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개발연구원(소장 홍영기)는 지난달 30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조경한 선생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세운(동북아 역사재단)박사가 민주

권찬위원회)박사가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백강 선생은 1920년대 이청천 장군이 이끈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상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 참여, 승리를 이끌어 냈다. 또 30~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했으며 광복 후에는 독립운동사 저술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사회활동을 펴다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엑스포에 순천만이 뜬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순천만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연안 습지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은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부합해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순천만은 여수와 인접해 있는데다 갯벌과 갈대가 펼쳐져 있고, 희귀 조류가 광범위하게 서식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천만은 인공적으로 철새들이 먹이를 주는 일본의 이즈미시 습지와 달리 이삭과 벌레 등 자연 먹잇감이 널려 있고, 갯벌과 갈대가 조성돼 있어 조류들이 다른 동물들의 침해를 받지 않는 등 천혜의 습지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 창원 람사르 총회 공식 방문지 확정

박람회 주제와 일치해 관광객 유치 기대

AR) 총회 참석자들의 공식 방문지로 확정돼 160여 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엑스포 기간 유치를 전후해 세계인들의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800만여 평 규모의 순천만에는 77만여 평의 갈대밭이 조성돼 있고, 200여 종의 조류와 120여 종의 염생(鹽生)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 228 호인 흑두루미가 겨울철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여수 한려해상자연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시 '선불카드 상품권' 발행

내년부터... 자치단체론 전국 최초

광양시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선불카드 상품권(PP카드)'을 발행한다.

광양시는 내년 1월부터 30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 선불카드 상품권' 발행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선불카드 상품권은 적립된 액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3만원 권 ▲5만원 권 ▲10만원 권 등 3종류가 발행된다.

가맹점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유흥업과 사행업, 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선불카드 상품권은 여타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폐형 상품권 보다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조 가능성도 적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